

# 1960~1970년대 초 지식인들의 사유구조와 역사 서사

윤상현\*\*

『창작과비평』을 중심으로\*

**초록** 『창작과비평』 ‘민족문학론’의 기원은 1960년대 문화적 근대화운동이었다. 여기에서 ‘근대(화)’의 개념은, 근대화를 산업화로 정의했던 것에서 나아가, 봉건성에 저항하고 자유와 사랑의 이상적 서구문화의 에센스를 실현하는 것까지 확대되었다가 1970년대 다시 (신)제국주의적 침략을 철폐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것이 되었다. 『창비』 편집진의 ‘근대화’에 대한 사유구조는 근대화를 끊임없이 보다 이상적인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대화’를 지속적으로 달성해야만 할 어떤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근대화에 대한 태도는 한일협정의 용인에 가까운 현실주의적인 것으로서 『청맥』 편집진 및 역사학계의 반일주의적 근대화와 차이를 보였다.

1960년대 이 근대화 운동의 주체는 초기 지식인과 문인을 문화적 근대화의 주체로 상정했으나, 이후 봉건성과 투쟁하는 공동체로서 소수 선각적 지식인과 다수 민중의 결합을 주장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급격한 산업화의 결과 소외된 민중이 점차 민족운동의 주체로 호명되었다. 1960년대의 공동체주의 모색은 민족과 민중의 호명으로 귀결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주체형성 논리는 개인주의 비판과 소시민의 배제, 사상적 일체화 등의 경향을 띠고 있었다.

역사의식·사회의식을 강조한 이 매체에는 저개발국이론의 소개와 맞물려 한국근대사 속에서 근대화이념을 모색하고자 했던 경향이 등장하였고, 이전까지의 역사 서사 방식이 낙후한 민족성—수난의 역사—낙후되도록 만들었던 요소의 개조 혹은 낙후되지 않은 전통적 요소의 선양이라는 두 개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창비』 이후에는 역사 속에서 근대화의 가능성들을 찾는 ‘서사’의 구도로 바뀌었다.

**주제어** 역사 인식, 근대화, 공동체주의, 민족주의, 민중

\* 이 논문은 2022년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기획연구 결과임.

\*\* 경남대학교 역사학과 조교수

한국사회는 비서구권 국가로서 드물게 산업화와 절차적 민주화라는 양방향의 사회발전 과정을 이루고 있는 사례로서 주목받아 왔다. 산업화 과정에 관해서는 발전국가론부터 최근의 ‘개발 자유주의’ 등 다양한 이론적 접근이 있었으나, 절차적 민주화를 가능케 한 사회 내부의 역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론화가 덜 진행되었으며 민주화 운동사라는 실증적 운동사의 한 분야로서 한정된 측면이 강했다.<sup>1</sup> 현대 한국 사회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발전 및 전개의 ‘계기적’ 특성을 밝혀 줄 수 있는 전체적이고 지성사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sup>2</sup>

한 사회 내부 지성계의 이념의 구성요소들과 전환의 역사들을 분석하는 것은 위의 역사적 과정을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산업화 시기 지성계를 사유구조와 그를 통해 구성해 낸 ‘역사 서사’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봄으로써 각국이 근대에 만들어 냈던 서사들을 보다 비교사적으로 재고해 볼 수 있도록 시도해 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산업화시기에 창간된 잡지 『창작과비평』은 1960년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여론형성세력으로 발전해 갔으며, 이 잡지를 배경으로 발전한 분단체제론, 동아시아론 등이 지속적으로 한국 지성계에 영향을 행사했고, 특히 현재까지 한국사학계의 근현대사 인식에 영감을 주고 있다.<sup>3</sup> 이런 측면에서 이들이 구성해 낸 이념과 서사의 구조가 무엇이며, 어떤 주체를 형성하여 어느

- 
- 1 개발 자유주의라는 최근의 문제의식에 관해서는 Chang Kyung-Sup (2019), *Developmental Liberalism in South Korea: Formation, Degeneration, and Transnationalization*, Palgrave Macmillan 참조.
  - 2 한국 현대 지성사에 대한 요청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이유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백승욱(2022), 「촛불의 오해, 차도(借道) 응징, 그리고 자유주의라는 질문: 20대 대선 평가」, 『황해문화』 115호, pp. 203-228.
  - 3 한국사학계와 『창작과비평』 그룹의 인적 관련성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신주백(2014a), 「관점과 태도로서 “내재적 발전”의 분화와 민중적 민족주의 역사학의 등장: 민중의 재인식과 분단의 발견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65, pp. 193-233; 이경란(2010), 「1950~70년대 역사학계와 역사연구의 사회담론화: 『사상계』와 『창작과비평』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25권, pp. 339-383.

방향으로 가고자 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한국의 산업화과정의 지성사를 조망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의 지성사 전개과정을 가늠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기존의 『창작과비평』(이하 『창비』)에 관해서는 박정희정부에 비판적인 대표적인 매체로서 1960년대 백낙청의 ‘시민문학론’을 공화주의라는 독자적인 이념체계로서 현재적으로 계승·재해석하고자 하는 견해가 있다.<sup>4</sup> 다른 한편으로 박현채 등 주요필진들의 ‘근대화론’이 박정희정부의 그것과 큰 차별성이 없었다는 비판적 논의도 제기되었다.<sup>5</sup> 또한 ‘민족문학론’을 주장했던 『창비』가 미학적 기반으로 소개한 신좌파 아르놀트 하우스의 이론이 반제적이지 않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미국의 입장을 세워주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sup>6</sup>

기존 연구의 논의 과정에서 1960년대 시민문학론에서 1970년대 민족문학론으로 전화과정이 역사 속에서 내적 논리로서 규명되지 않음으로써 당대 지성사의 현재적 의미에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들에서 제기되었던 1960년대에서 1970년대로 전환의 문제와, 4월 혁명 직후라는 역사적 상황뿐만 아니라 산업화의 상승기에 처해 있었던 당시 한국 사회에서 지적 행보라는 차원에서 당대 지성사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우선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 드라이브에 대한 그들의 태도 및 현실인식을 분석해 보고, 그들의 사유에서 가치체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사상계』(1953~1970)·『청맥』(1964~1966) 등 당시 매체들과 지향 및 운동의 주체 구성 면에서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 그리고 역사 서사가 왜 문제시되는지에 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각 매체들

4 김현주(2014), 「1960년대 후반 문학 담론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근대화주의의 관계: 『창작과비평』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41집, pp. 371-413.

5 김보현(2006),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6 임현영(2003), 「유신체제와 민족문학」, 『증언으로서의 문학사』, 깊은샘, pp. 332-333.

의 매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민족문학론이 형성되는 1970년대 전반까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념적 지향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상대적으로 파악될 때 오히려 그 의미가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능한 한 『사상계』, 『청맥』 등 당대의 매체들과 비교를 통해 그 역사적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해 보고자 하였다. 『사상계』와 『청맥』이 권마다 편집장의 「권두언」을 두어 매체의 내용적 방향성을 정했던 반면, 『창비』는 소략한 「편집후기」가 있지만 발행인이 직접 주요논설을 신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매체로서 『창비』의 편집방식은, 『사상계』가 따로이 전문가집단으로 이루어진 편집위원회를 두고 일정시기마다 편집위원회를 교체했던 것과는 다르고, 『문학과지성』처럼 고정된 4인의 편집위원이 사회의 형식으로 매 호마다 소집되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sup>7</sup> 『사상계』와 같은 편집위원회체제일 경우에 편집위원회가 구성되는 공통요소를 염두에 두고 주요 집필진들의 논설들을 분석해서 다기한 경향성들을 추출해 내야 한다면, 편집인이 문학비평가로서 전문성을 갖고 직접 편집하고 『창비』와 같이 주요논설을 통해 매체의 방향성을 이끌었던 경우 편집인의 논설들을 주요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주요필진들의 논설과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경향파악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sup>8</sup>

구체적으로는 근대화와 분단문제, 운동의 주체 등 1960~1970년대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점을 분석하여 『창비』가 취했던 사회비평의 전체 스펙트럼을 파악한 후, 이러한 정치경제적 입장이 1960년대 『창비』에서 구성된 역사 서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창비』에

7 『사상계』의 편집위원회 구성과 그 변천, 역할에 관해서는 윤상현(2019), 「『사상계』의 시기적 변화와 ‘개인’ 개념의 양상」, 『인문논총』 49, pp. 157-168 참조. 편집장이었던 장준하는 짧은 권두언을 제외하고 글을 실었던 경우는 드물었다. 『문학과지성』의 편집위원회 운영방식에 관해서는 김병익(2003), 「4·19 세대의 문학이 걸어온 길」, 『증언으로서의 문학사』, 깊은샘, pp. 233-288 참조.

8 1950년대~60년대 문학잡지들의 편집체제의 차이에 관해서는 문학과비평연구회(2004), 『한국문학권력의 계보』,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참조.

실렸던 문학 작품 및 문학이론에 관한 연구들을 제외한 경제비평 및 사회비평, 한국사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필진들과 편집인의 글을 주요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 1. 끊임없이 확장되는 미래로서 ‘근대(화)’

4월 혁명 이후 제2공화국의 언론정책이 언론자유와 언론기업의 전파매체 허용이었다면, 5·16 이후 박정희정부의 정책은 1,200여 종의 언론매체의 폐간과 언론의 기업화에 대한 전면적 지원이라는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1962년 한국의 중립국 가능성을 암시한 『동아일보』 연재소설 『여수』(旅愁)의 게재중지 이후, 1964년 『세대』에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주장한 황용주의 구속으로 이어졌다.<sup>9</sup> 다른 한편 1962년 언론에 대한 기본방침 이후 『동아일보』의 라디오방송국 허용, 삼성의 『중앙일보』 창간 허용, 문화방송의 『경향신문』 경영 허용 등 언론의 기업화 지원을 핵심으로 체제내화가 추진되었다.<sup>10</sup>

1950년대 대표적인 종합사상지로서 적극적인 근대화를 추구했던 『사상계』는 1960년대 군사정권의 탄압과 더불어, 경제적 근대화를 정권이 정당성 기반으로 삼으면서 이러한 박정희정부의 근대화방략에 대한 동의 혹은 저항으로 양분되기 시작했다. 정권의 근대화 방향을 지지하면서 시민의식의 발양 등을 촉구하는 세력과 재벌중심의 근대화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양분되면서 약화되기 시작했다.<sup>11</sup> 한편 『한양』에 이어 비판적 민족주의계

9 황용주, 이병주 등 당시 중립화 등을 주장했던 문인들의 상황과 내면풍경에 관해서는 오창은(2016), 「결여의 증언, 보편을 향한 투쟁: 1960년대 비동맹 중립화 논의와 민족적 민주주의」, 『한국문학논총』 72집, pp. 5-39 참조.

10 김민환(2002), 『한국언론사』, 나남, pp. 454-528.

11 윤상현(2014), 「1960년대 사상계의 경제 담론과 주체 형성 기획」, 『동국사학』 57권, pp. 541-574.

열 잡지로 알려진 『청맥』은 외환위기와 그에 따른 박정희 정부의 환율개정을 반대하고, 일본과 한일협정 및 차관도입을 비판하면서 재벌중심의 근대화화에 반대하는 특집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했다.<sup>12</sup>

한일협정, 외환위기와 환율개정 등의 지형 속에서 1966년 문학종합지로서 창간한 『창비』(1966~1980)는 1) 서구 사회철학 및 사회비평 번역글 2)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분석기사 3) 편집자의 주요논설 4) 한국사 논문 5) 한국문학작품 6) 서구 문학 및 미학 번역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60년대 근대화를 비롯한 한국 경제를 분석한 논설은 주로 서울대 경제학교수 임종철을 중심으로 실렸고, 1970년대에는 보다 다변화되어 박현채, 이청산, 조용범, 유인호, 김성두, 정윤형, 주석균, 박용상 등의 글이 실렸다.

임종철은 196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산업화의 양적 성장이 두드러지던 시기에 “고이윤=고도성장이라는 공식이 환상이며,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개념이 고른 소득성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의 농산물가격 억압 정책을 비판하면서, “자본축적은 경제발전의 10% 내지 14%를 설명하는 데 불과하고, 나머지는 노동생산성과 그 상승을 가능케 하는 기술변화”라 하여 공업이 농업 발전 위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3</sup> 또한 국제 관계에 관해서도 국가 간 균등발전을 추구하고 선진국/저개발국 간의 소득 격차의 심화를 논한 1960년대 미르달(Karl Gunnar Myrdal, 1898~1987)의 저개발국이론을 소개하였다.<sup>14</sup>

12 이덕주(1965), 「특집 한국의 타부들: 난공불락의 제국 재벌」, 『청맥』 1월호; 임종철(1965), 「특집 한국의 독점산업: 한국재벌의 사회적 책임」, 『청맥』 3월호; 구석모(1965), 「한국독점산업의 특질」, 『청맥』 3월호; 문동하(1965), 「독점폭리의 규모」, 『청맥』 3월호; 김성두(1965), 「특집 추악한 재벌들: 제도적 모순과 악덕재벌」, 『청맥』 11월호; 정윤형, 「예속 빈곤 안고온 재벌」, 『청맥』 11월호; 엄길정(1965), 「걸어온 길 천민자본주의」, 『청맥』 11월호.

13 임종철(1966), 「경제이론의 시너성과 객관성」, 『창비』 봄호.

14 임종철(1966), 「구나르 미르달의 세계」, 『창비』, 봄호.

임종철이 1960년대 박정희 정부하의 경제성장이 개인의 경제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농공 격차, 선후진국 간 격차 등을 비판하면서 경제적 격차의 해소를 지향했다면, 1960년대 한국 사회 근대화의 방향과 그 개념에 대한 편집진의 인식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1960년에서 1970년대까지 『창비』 편집인 백낙청의 현실인식에는 한국의 후진성, 낙후성에 대한 강조가 있었으며, 이 낙후성을 극복하는 것으로서 적극적인 근대화가 추구되었는데, 이때 근대화는 일차적으로 산업화를 의미했다.

여기서 까뮈의 <바다와 별들의 세계>를 해묵은 음풍농월과 혼동하거나 로오렌스를 업고 한국의 산업화를 막아 보려는 것은, 싸르트르의 이름으로 맹목적 행동주의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년센스일 것이다. ... 20세기라는 시대가, 산업화 안하고도 한국이 정치적 주권과 문화적 창조능력을 가질 수 있는 시대냐 아니냐는 우리가 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 남은 것은, 우리 힘으로 어찌 못할 튼 변동 속에서 우리의 예지와 노력과 용기에 달린 가치들이 얼마나 살 수 있을 것인가는 문제뿐이다.<sup>15</sup>

이미 근대화가 시대적 과제가 된 상황에서 근대화 자체에 문제제기를 할 수 없으며, 그 근대화를 ‘통해서’ 추구하려는 가치가 무엇이나가 중요하다는 논의를 통해서 ‘어떤 근대화이어야 하는 가’에 대한 의제를 빚겨갔다고 할 수 있다. 당시 1965년 한일협정을 둘러싼 반대 데모와 논의는 근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근대화를 위한 외자도입 문제에 관해 지식인계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

세계제일의 저소득국민이란 영광을 차지케 된 환율개정의 그늘엔 민족

15 백낙청(1966),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창비』 봄호, p. 34(이하 인용문의 밑줄 등 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임).

자본 영세화의 촉진제가 도사렸고 국가산업 쇠퇴의 근인이 숨었으니 위정자는 모름지기 효율적인 원조의 본질을 파악하기에 민족적 양심으로 대오 일심해야 할 줄 안다. … 우리의 국권을 약탈하고 겨레를 침략의 도살장으로 몰아 놓은 민족의 원수에게서 옳드려 절 받는 식의 경제협조를 빙자한 차관이란 이름의 위장된 고리채를 쓸 수가 있겠는가?<sup>16</sup>

『청맥』 발행인 김진환의 「권두언」은 1961년, 1964년의 외환위기를 비판하며 그에 따른 박정희 정부의 환율개정을 반대하고, 일본과 한일협정 및 일본으로부터 차관도입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청맥』 창간사와 이후 권두언에는 일본 침탈의 역사를 특집으로 다루고, 기획기사들로 일본의 침탈로 인한 민족적 수난의 역사 그로 인한 한국인의 병리를 다루었다.<sup>17</sup> 반면 『창비』의 발행인 백낙청은 반일주의보다는 근대화에 더 큰 방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일국교로 열리는 우리 현대사의 새로운 시기가 창작과 비평을 위한 무슨 행운의 전기를 마련해 주려니 하고 비는 것처럼 허망한 짓은 없다. 그러나 한일경제유대로 비록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경제사정의 호전이라도 이룩된다면, 어느 정도의 물질적 여유를 전제하는 문학으로서는 새로운 행동반경을 얻는 것이 사실이며, 자극된 민족감정은 문학인의 형클어진 방향 감각을 바로잡아 줄지도 모른다. 한일국교에 임하여 불만과 누우침과 두려

16 김진환(1964), 「권두언-역사에 살아야 한다: 민족적 양심에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청맥』 9월호.

17 「특집 아아 이 민족이 수난」이라는 주제하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열강경쟁하의 구한말, 일제의 경제침탈, 일제무단통치의 본질, 민족적 수난과 한국민의 병리 등을 다루었다. 이현중(1964), 「임진왜란과 한민족의 수난」, 『청맥』 8월호; 심우준(1964), 「병자호란과 우리의 수난」, 『청맥』 8월호; 이종린(1964), 「열강경쟁하의 구한말」, 『청맥』 8월호; 김책(1964), 「일제의 경제침탈」, 『청맥』 8월호; 김대상(1964), 「일제무단통치의 본질」, 『청맥』 8월호; 이철범(1964), 「민족적 수난과 한국민의 병리」, 『청맥』 8월호.

움이 많은 대로 우리 문학은 또 하나의 기회를 내다보게 되었다.<sup>18</sup>

백낙청은 물질적 근대화가 전제되어야 문학 등 문화적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며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해서도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양』, 『청맥』과 『창비』를 민족주의/민족문화계열이 계승된 것으로서 유사한 현실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았으나,<sup>19</sup> 근대화를 위해 한일협정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맥』 발행인 계열의 반일주의적 민족주의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근대화에 대한 인식은 식민사학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당대 역사학계의 인식과도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1960년대 백낙청은 근대화의 방향, 속도, 그 성격이 빈부격차가 덜한 방향이라거나 수많은 스펙트럼이 가능한 점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없었으며 특혜반대나 공정거래 등 시장의 공정성에 관한 것으로 논의를 한정하였다.<sup>20</sup> 산업화가 재벌 중심일지 혹은 중소기업 중심일지, 누구를 위한 근대화일지, 그 근대화의 방향에 관해서는 거리를 두었다.

또한 “민족의 궁극적 통일과 한국사회의 자유화 및 근대화라는 역사적 과제”라는 표현에서도 보이듯이 후진성 극복을 위한 산업화로서 근대화는 통일과 병렬되어 있었다. 분단문제에 대한 인식은 근대화와 더불어 1960년대 『창비』 편집인 백낙청의 매 주요논설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했다.<sup>21</sup>

역사학에서 1973년 ‘분단시대’라는 용어가 회자되기 이전에 통일은 이

18 백낙청(1966), p. 38.

19 대표적인 연구서로는 하상일(2008), 『1960년대 현실주의 문학비평과 매체의 비평전략』, 소명출판.

20 “양단된 국토에 살며 (최근 경제윤리강령의 제정을 보고 어느 경제학자가 분개했듯이) ‘금융특혜요구, 연체대부상환지연, 부정축재 환수금 납부거부, 탈세, 고가격조작, 덤핑, 공정거래법제정반대’ 등이 활개 치는 것을 목격해온 작가의 갈등과 긴장과 저항의식이 스며드는 것을 말한다.” 백낙청(1966), p. 20.

21 백낙청(1967), 「역사소설과 역사의식」, 『창비』 봄호, p. 40.

미 1960년대 민족주의계열 지식인들의 공통된 현실 인식이었다고 하겠다. 다만 『세대』, 『청맥』 등이 중립화 통일안처럼 구체적이고 정책적인 통일방안을 동반한 통일지향이었다면, 『창비』의 통일지향은 문화적인 동질성 회복에 보다 가까운 것이었다.<sup>22</sup> 1960년대 『창비』에는 통일과 근대화=산업화를 위한 지식인의 역할, 세계문화 수준의 한국문화 혹은 동양역사의 갱생 등이 강조되었다.

그런데 1969년 이러한 ‘근대화’ 인식은 보다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변모한다. 근대화과정에서 어떤 가치를 남길지에 대해서 백낙청은 이를 시민의식으로 정의한다.

봉건영주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치적 권리를 획득함으로써 ... 농민들에 비하면 처음부터 뚜렷하던 이들의 단체의식은 자신의 공동운명과 사회적 위치를 명백히 인식하며 필요하다면 실력을 행사해서라도 봉건적 제약을 철폐하겠다는 하나의 주체적인 시민의식으로 발전하는 것 ... 우주내에서 플라톤적 <설득>의 원칙으로서의 <이성>, 그 움직임의 추진력으로서의 <사랑>(플라톤철학의 에로스), 그리고 그러한 이성과 사랑의 역사적 구체화로서의 <시민의식><sup>23</sup>

백낙청은 근대화를 이룬 서구의 에센스를 자유와 사랑을 추구하는 ‘시민의식’이라고 본다. 봉건성에 투쟁하던 시점의 부르주아문화를 회귀하면서 이러한 ‘혁명적’ 의식을 시민의식으로 명명하는바, 결국 시민의식이란 서구와 같이 봉건성과 투쟁한 근대화를 지향하는 것이며, 그 근대화의 지향

22 “우리가 단일민족이요 통일국가가 되어야 함을 거리낌 없이 주장하는 첩경은 문학을 통해 민족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며 같은 언어 같은 풍습의 소유자들임을 거기서 재확인하는 길이다. 따라서 한국문학은 ... 역사적 운명공동체인 한국민족의 가장 애타는 소망을 대변하는 것이 된다. ... 한국의 잠재독자층이 휴전선 이남의 대중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새삼스레 느낀다.” 백낙청(1966), pp. 29-30.

23 백낙청(1969), 「시민문학론」, 『창비』 여름호, p. 463.

점은 ‘자유’와 ‘사랑’이 실현된 어떤 이상적인 순간이다.

모든 世界進化적 세력이 <사랑>과 <자유>의 동의어로서의 참다운 시민 의식으로 일체화할 때 인류가 현재의 인류로서는 개념화하기조차 힘든 어떤 높은 경지, <超人化>라 부르건 <成佛>이라 부르건 우리로서는 어렵듯이 짐작만 하거나 개별적인 은총의 순간에야 홀연히 깨칠 수 있는 어떤 경지에 함께 이르리라는 가르침을 우리는 만해의 불교사상에서 얻을 수 있다.<sup>24</sup>

근대화를 서구문화의 에센스를 현현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그 주체를 사상적으로 일체화된 연합으로 상정하는 것은 당대 지식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흡입력을 발휘하였다. 근대화를 산업화로 상정했다가, 다시 봉건성과 투쟁하고 자유와 사랑의 이상적인 서구문화의 에센스를 실현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면, 1970년대에는 봉건성과 투쟁에 더해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염무웅씨는 “민족의 염원에 합치되는 참된 근대화, 즉 봉건적 속박과 제국주의적 침략을 철폐하고 모든 식민지적 매관적 근대화의 기만성을 폭로하는 역사적 과업이 여전히 완수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근대문학 역시 아직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근대를 보는 관점이 종래와는 다르다는 것이 지적되어야 한다. 즉 외세의존적 근대화를 부인하고 민족주체에 의한 근대화를 주장하며 그것도 발전과정을 중요시하기보다는 결과를 높이 평가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sup>25</sup>

1970년대 염무웅은 근대화의 정의에 관해서 “봉건적 속박과 제국주의

24 백낙청(1969), p. 490.

25 임현영(1975), 「近代文學史 論考」, 『창비』 봄호, p. 80.

적 침략을 철폐하고 모든 식민지적 매관적 근대화의 기만성을 폭로하는 역사적 과업”이 완수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sup>26</sup> 염무웅의 근대화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근대사·근대문학·근대의 기점을 1945년 8월 15일로 상정한 것으로 분류되게 하였다.<sup>27</sup> 『창비』 편집진의 ‘근대화’ 인식은 근대화를 산업화로 정의했던 것에서 나아가, 봉건성에 저항하고 자유와 사랑의 이상적 서구문화의 에센스를 실현하는 것으로 심화되고 1970년대 다시 (신)제국주의적 침략을 철폐하는 것이 완수되는 것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창비』 편집진의 ‘근대화’에 대한 사유구조는 근대화를 끊임없이 보다 이상적인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대(화)’를 지속적으로 달성해야만 할 어떤 것, 달성되어야 할 미래로 상정하는 것이었다.

## 2. 운동의 주체 구성: 반(反)개인주의적 사상의 일체화

1966년 『창비』 편집진이 추구했던 근대화에서 그 추진 주체는 지식인과 작가였고 이 지식인과 작가들이 민중의 저항을 가로막고 근대화의 이상을 제시해야 하는 존재로 호명되었다.

한국에 관한 한, 민중의 저항을 가로막고 근대화를 위한 가장 보편적인 이상을 제시하며 실천하는 역사의 주동적 역할을 작가와 지식인이 맡아야 한다는데에 딴 말이 있기 어렵다. (총략) ‘작가와 비평가가 힘을 모으고 문학인과 여타 지식인들이 지혜를 나누며 대다수 민중의 가장 깊은 염원과 소수 엘리트의 가장 높은 기대에 보답하는 동시에 세계문학과 한국문학 간의 통로를 이룩하고 동양역사의 효과적 갱생을 준비하는 작업’<sup>28</sup>

26 염무웅(1971), 「근대문학의 의미」, 『대학신문』 10월 11일자.

27 임현영(1975), p. 76.

28 백낙청(1966), pp. 34-38.

1960년대 수준 높은 문화적 근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 주체는 작가와 지식인이며, 이들이 민중의 염원을 대변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소수 수준 높은 엘리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이 주어졌다고 하였다. 이 시기까지 민중은 “자신의 깊은 염원”을 자각하기 어려운 존재로 근대화에 관련된 그들의 소망조차 지식인에 의해 표현되어야 할 존재로 그려진다.

그러나 1969년에는 근대화과정에서 살아남길 가치로서 ‘시민의식’이 표명되면서, 운동의 주체가 변화한다. 여기서 시민의식은 근대적 시민계급·부르주아지들의 정신을 의미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시민=부르주아지는 금융자본으로 상층지배계급이 된 계층과, 자본을 소유하지도 노동자도 아닌 프티부르주아지로 분화되었는데, 일단 이들 신중간계급인 소부르주아지는 시민의식을 공유할 세력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엄연히 시민계급의 일원이면서도 시민계급의 제반 지배적 결정에는 참여 못하고 그런데도 자신이 지배계급의 구성원이고 자립자족적인 시민이라는 환상은 끝내 고집하고 있으며 바로 그러한 자가당착적 처지와 자기 이해의 결핍 때문에 극도로 무책임한 개인주의와 극도로 감정적인 집단주의 사이를 무정견(無定見)하게 방황하면서 해소할 길 없는 원한과 허무감과 피해망상증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사회의 수많은 시민들—이들을 우리는 中小企業家나 小商人이니 또는 현대적 新中間階級이니 하는 식으로 계층 구별함이 없이 통틀어 小市民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보면 소시민이란 그 자신이 잘 살겠다는 집념이 강한 만큼이나 살아 있을 이유가 희박한 인간형이라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sup>29</sup>

여기에서 중소기업가, 소상공인, 현대적 신중간계급 등을 포함하는 소부르주아지는 “무책임한 개인주의와 감정적 집단주의 사이에서 방황하는” 존

29 백낙청(1969), p. 462.

재로서 이 (문화적) ‘근대화’ 운동에서 배제된다. 흔히 계급·계층론에서 지식인들, 문인들이 소부르주아지로 분류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서 언급된 작가, 문인 및 지식인들의 주도적인 역할론과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이 시민문학론에서 “살아있을 이유가 희박한 인간형”인 소시민은 계층이라기보다는 이 근대화운동에 대한 태도 혹은 역사의식·사회 의식과 관련된 것일 것이다.

현실과의 절충을 통한 새로운 입장이 선택되어야 했을 때 위험에 관여할 것을 단념함으로써 안전지대로—세상이야 어찌됐든 나만을 건드리지 않으면 만족한다는 태도로 물러선다. 이제 그의 소극적 개인주의는 사회현실과의 강요된 충돌을 거쳐 모든 가치에 대한 nihil리즘으로 귀착된다. 그냥 기본 내키는 대로 남에게 해로운 것이나 없으면서 살아가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그르니 하고 따지는 것은 질색이다.<sup>30</sup>

그 태도란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룩하겠다는지 하는 적극적 의욕의 산물이 아니라, 개인의 좁다란 영토를 침해받지 않겠다는 자기보호 본능의 안간힘”으로 묘사되며, 이는 “소시민적 속물”의 태도로 귀결 지어진다. “현실도피적 순응주의” 혹은 “소극적 개인주의”로 표현한다.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옳은 입장과 태도를 선택하고 일단 그것을 찾으면 이를 지켜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는 비난받아야만할 개인주의적 태도로 규정되었다. 특히 이 산업화 및 근대화의 시기에 개인주의는 “최신의 개인주의나 허무주의”로서 반복적으로 비판의 대상으로 언급된다.<sup>31</sup>

30 염무웅(1968), 「선우휘론」, 『창비』 겨울호, p. 649.

31 “전통경시, 현실은폐로 특징지어진 어설픈 개화에서 동물적 본질을 알보는 아모로겐 아우라몬하는 식의 구역질나는 애정론이 나타난 것도 우연이 아니며, 현대인의 감정이니 현대적 성관계를 자랑스레 내세우는 최신의 개인주의 내지 허무주의도 같은 나무의 다른 잎새에 지나지 않는 것” [백낙청(1969), p. 482].

‘소극적 혹은 무책임한’ 개인주의에 반하는 시민의식은 자유와 사랑이라는 서구문화의 정수가 담긴 근대화의 이상적 의식을 통해서 소수의 지식인과 대다수의 민중과 연대를 가능케 한다. 시민이란 결국 근대화 ‘혁명’ 혹은 근대화 ‘개조’에 급진적으로 참여하는 세력이며, 계층적으로는 이러한 봉건성에 투쟁하는, 근대화 지향성을 공유한 “대다수 민중과 소수의 지식인”의 연합이다. 다만 여기에서 개인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소시민은 배제되어야 하며, 시민의식이란 결국 근대화 우위의 가치체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대(화) 운동은 달성되어야 하고 추구되어야만 할 미래적이고 이상적인 어떤 것이다.

이 근대화운동을 이상적인 어떤 것으로 상정할수록 이 이상적인 ‘시민의식’으로 모든 세력이 일체화되는 것, 혹은 그 내부 세력의 일체화, “사상적 일체화”라는 특징적인 지향을 보인다.

우리가 소설의 문제건 영화의 문제건 시·그림·음악·건축의 문제건 사회 전체의 참다운 시민화, 진정한 자유와 평등과 우애의 현실화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고 믿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sup>32</sup>

백낙청은 “모든 世界進化적 세력이 <사랑>과 <자유>의 동의어로서의 참다운 시민의식으로 일체화”하는 것을 “사회 전체의 참다운 시민화”라고 부르면서 이를 이상적인 상태로 회구한다.<sup>33</sup> 사랑과 자유를 지향하는 ‘시민의식’, 그 시민의식의 실현과정으로서 역사를 구성하는 네러티브에는 이러한 사상적 일체화와 더불어, 개인주의 및 개인 원자화에 대한 비판이 전제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근대화’를 지향하는 ‘시민의식’, 그 시민의식의 실현과정에서 개인주

32 백낙청(1969), p. 474.

33 백낙청(1969), p. 490.

의 비판과 더불어 또 다른 특징으로 일종의 공동체주의적인 희구도 엿보인다. 개인주의와 개인 원자화에 대한 비판은 D.H. 로렌스에 대한 선택적 소개에서도 나타난다.

시민의 큼직한 체스추어를 통해 자존심과 긍지를 갖고 단결하게 해주는 공동체의 본능을 좌절시켰기 때문 … 건전한 시민적 양식이야말로 로오렌스 문학의 핵심 … 고정된 공민정신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채 실현 안 된, 어떠한 채 인식되지조차 않은 어떤 목적을 실현하려고 활동하고 있을 때 자유로운 것”(미국고전문학연구)1장이라고 말할 적의 〈자유〉와 동의어로서의 〈시민의식〉인 것 … 서양문명의 테두리조차 완연히 넘어선 문제<sup>34</sup>

백낙청은 로렌스 문학의 핵심을 ‘건전한 시민적 양식’으로 보면서, 로렌스가 말한 자유를 시민의식으로 전유한다. 그런데 영국의 문화사회학자 윌리엄스는, 로렌스가 생애 말년에 영국을 떠나 한때 미국의 소도시에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생활하며 지향했던 공동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생생하고 유기적이고 믿음을 가진 공동체는 … 노동자의 아들 로오렌스의 비극은 그가 살아서 집에 돌아오게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 후년에 로오렌스는, 산업주의의 압력이 가장 표면화되고 뚜렷했던 광산지대를 다시 찾아보고 나서 … 이에 대한 창조적 반응으로, 체털리부인의 연인을 채우고 있는 직접적 관계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였다 … [산업주의체제의: 필자] 「야비한 강제」에 의해 부정됐으나 도리어 그 강제를 폐지할 수도 있을 인간의 생명력에 대한 그의 필생의 탐구가 이제 그 클라이막스에 도달한 것이었다 … 돈과 재산을 위한 경쟁에의 「야비한 강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34 백낙청(1969), pp. 479-480.

... 상투적인 성의 강조가 아니라 이것 역시 「자아의 중추」로 되돌아가는 일이며, 온전한 성적 관계를 비롯한 모든 온전한 관계들이 거기서부터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35</sup>

윌리엄스의 해석을 따라간 로렌스의 공동체는 1) 노동자 가정에서 겪은 로렌스 자신의 어머니와 가족공동체 생활의 경험, 2) 개인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노동조차 분업화된 자본주의적 삶에 대한 회의, 3) 반(半)농 반(半)도시에서 경험했던 유년기의 긍정적 기억, 4) 산업주의체제가 야기한 대중의 원자화에 대한 비판이 녹아들어 있다. 로렌스가 공동체를 언급했던 글은 그의 고향 노팅엄을 회상하며 산업화에 의해 획일화된 산업도시가 되었지만 여전히 미국이나 파리의 도시들에서 그가 목도했던 도시민적 문화의 마인드도 결여되어 있음을 개탄했던 것이다.<sup>36</sup> 로렌스에게 이 공동체는 산업주의체제에 의해 부정된 어떤 것, 어린 시절의 가정이나 새로이 구성할 소규모의 소도시공동체, 혹은 더 나아가 '자아의 중추'로 돌아가게 만들어 줄 어떤 관계다.

반면 백낙청은 이 공동체논의를 전유해서 산업화의 근대화, 봉건성과 투쟁하는 공동체로 환원했으며, 그 근대화 추구의 과정을 자유와 사랑이 넘쳐나는 곳, 서구조차 도달해 보지 못한 서구적 근대를 뛰어넘는 어떤 근대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끌 소수 선각적 지식인과 이끌릴 다수 민중의 연합을 상정하였으며, 이 연합체가 그 내부에서 '사상적 일체화'로 이끌릴 것을 추구하였다.

1960년대 말에 이르면, 박정희정부의 조국근대화와 '제2경제의 정신적 근대화운동'의 구호는 국민적 동원에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게

35 윌리엄스(1966), 백낙청 역, 「로오렌스와 산업주의」, 『창비』 여름호, pp. 354-355.

36 D. H. Lawrence (1929/1930/1936/1954), "Nottingham and the Mining Country," written 1929, the New Adelphim, June-August, 1930. Phoenix, 1936, *Selected Essays*, Penguin Books, 1954, pp. 121-122.

되었고, 근대화가 민족중흥의 사명임을 강조하는 국민교육헌장 제정과 국사교육을 강화하는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졌다.<sup>37</sup> 10여년의 급격한 자본주의적 산업화는 전태일 분신에서 나타난 열악한 노동조건과 빈부격차, 도시농촌의 격차와 도시빈민 등을 양산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배경으로 1970년대에 『창비』 내부에서는 집단적 주체로서 농민과 민중에 대한 환기가 있었다.

염무웅은 “국토의 대부분이 농촌이요 국민의 절반이상이 아직 도시인이 아닌 마당에서, 역사적 결정권에서 소외되었으면 소외된 대로의 그들의 삶이 결코 소외되어서는 안 되는 삶”을 환기시켰고,<sup>38</sup> 신경림은 농민을 비롯한 도시변두리, 판자촌의 도시빈민, “실의의 실직자, 악착스러운 생활인, 어리석은 농삿꾼”을 “민중”으로 호명하였다.<sup>39</sup>

서양자본주의가 세계를 지배한 이후의 후진제국에 있어서 도시는 본질적으로 서구의 세계지배를 자국의 농촌에 전달하는 매관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곳에서의 올바른 근대문학은 농촌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적어도 농촌사람의 눈으로 파악된 문학이 민족문학의 바탕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sup>40</sup>

염무웅은 서구에서 도시는 자유와 근대의 상징이지만, 후진국에서 도시는 농촌에 의존적이며 매관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근대와 자유의 역할을 농촌이 맡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1973년 백낙청의 「문학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은 이 문화적 근대화 운동의 주체가 다시

37 장영민(2007), 「박정희 정권의 국사교육 강화 정책에 관한 연구」, 『인문학연구』 34권 2호, pp. 456-458.

38 염무웅(1970), 「농촌 현실과 오늘의 문학」, 『창비』 가을호.

39 신경림(1973), 「문학과 민중: 현대한국문학에 나타난 민중의식」, 『창비』 봄호.

40 염무웅(1971), 「올바른 근대문학은 농촌에서 태어나는 것」, 『대학신문』 9월 20일자.

한 번 재구성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운동의 주체로서 1960년대의 소수 선각적 지식인과 민중의 연대라는 엘리트주의적 지식인-민중관에서 민중의 역할에 보다 방점을 두는 단계로 변화하였다.

우리가 양심의 문제를 논하고 역사의 문제를 논할 때 어느 개개인의 고매한 이상이 아닌 다수 민중의 의식과 움직임을 중요시하는 뜻이 여기 있다 ... 사회적 부의 소유에서 소외된 민중이나 국제적 부의 경쟁에서 뒤떨어진 민족에게도 그 역사적 사명과 창조적 에너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인간에 대한 신뢰와 애정의 실천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 각성한 민중의식이란 이상은 없고 사명만이 남은 경지라고 표현해도 좋겠다. 우리가 강조하는 양심이란 것도 별거벗은 본마음 그대로의 상태에서 민중과 한 몸이 되고 만인과 형제처럼 결합하는 경지를 말한다 ... 이상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親民〉의 사명으로 파악할 필요를 느끼는 것<sup>41</sup>

사회적 부에서 소외된 민중에게도 역사적 사명과 창조적 에너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상류계급층이나 도회생활의 현란한 문화보다도 자연의 질서와 민중적 공동생활의 전통에 뿌리박은 삶을 본질적인 의미에서 더 인간다운 삶이며 올바른 역사발전의 터전”이라고 보고 현실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원적 농민적 기반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의 비전”<sup>42</sup>을 주장한다. 여기에 민중언어의 사용, 민중과의 연대의식을 강조하는 역사의식을 제시하였다.<sup>43</sup>

41 백낙청(1973a), 「문학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창비』 여름호, p. 445.

42 백낙청(1973b), 「시와 민중언어: 위즈위스의 『서정담시집』서문을 중심으로」, 『세대』 12월호.

43 “역설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시민의식〉은 농촌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우리가 바라는 〈시민문학〉이 농촌문학의 형태로 나타난다. 제국주의시대에는 도시 농촌이 다른 성격을 띤다. 원래 서구시민혁명 당시의 런던이나 빠리는 범민족적, 민중적 에너지의 집결체로서 그 에너지를 혁명적 의식으로 승화시키는 역할을 했던 데 비해, 후진국의 도시들은

1960년대 이들은 개인주의와 원자화에 대한 비판, 사상적 동질성에 기초한 공동체주의를 지향한 통일과 (문화적) ‘근대화’ 운동을 추구하였다면, 1970년대에는 민중의 창조적 에너지를 인정하면서 이 운동을 “광의의 문화적 인간해방운동”, “문화운동”으로 확대 명명하여, 통일을 민족문화 전체 혹은 문화 전체의 것으로 구성하였다.<sup>44</sup>

1970년대 한국사회는 제2차 경제개발이후 일정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기 시작했고 대중매체에는 ‘마이카시대’, ‘복부인’을 부르짖는 대중소비의 시대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산업화와 짝을 이루는 이촌향도의 대규모 도시화는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한국사회의 중간계급의 대부분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세대였으며, 그중 일부 지식인은 어린 시절 북한에서 월남한 세대였다. 대규모의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대중문화화가 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급격한 문화적 변화가 초래하는 정체성의 혼란, 뿌리 없는 대중, 정서적 공동화, 전통 종교 및 신념의 부재 및 공동화였다. 1970년대 『창비』 지식인들이 문화적 운동을 확대하기 위한 동원 전략은 ‘시민’보다 감성적이고 신념에 가까운 ‘민족’으로 호명하는 것이며, 이 ‘민족’은 감성적이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근대화에 찌든 도시적 삶을 위안하는 ‘농촌’, 근대화에서 소외되었으므로 잃어버린 인간 본성, 돌아가야 할 최후의 휴머니티를 간직한 공간으로서 ‘농촌’이었고, 7·4남북성명의 열기와 뒤이은 유신체제가 만들어 낸 문화적 충격과 결핍을 채워 줄 어떤 것으로서 미래적 ‘통일’이었다. 식민지조선과 해방된 조선을 경험했던 세대들에게 근대화, 민족주의와 통일은 루소가 말한 시민종교에 가까운 것으로 전화하기 용이했을 것이다. ‘근대적 시민의식’, ‘통일된 조국’을 그리고 그 면면에는 늘 달성할

---

민중의 의식과 정력을 집약한다기보다 생소한 사회의 의식과 정력을 민중에게 전달한다 ... 여기에서 민중적 체험에 근거한 농민문학의 <시민문학적> 의의가 생긴다. 농촌현실을 통해 도시현실의 어떤 근본적인 역사적 성격을 포착하는 문학” 백낙청(1974), 「한국문학과 시민의식」, 『독서신문』 10월 6일자.

44 강만길 외 좌담회(1977), 「분단시대의 민족문화」, 『창비』 가을호.

미지의 것으로서, 완성해야 할 어떤 것으로서 ‘근대’에 대한 갈망을 놓았고 문화적/경제적 근대화의 동원의 계기가 되었다.

### 3. ‘근대화’의 역사 서사: 대결적 역사인식

문학지임에도 불구하고 1967년부터 대략 전체기사의 25%가 한국 역사 관련 논설이 실렸던 『창비』는 사회참여와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을 강조하였다.<sup>45</sup>

1950년대까지 한국사 서술에서는 대체적으로 후진성과 정체성을 강조하여 부정적인 각도에서 접근했으며, 이와 달리 한국사의 ‘영광’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국수주의적 견해도 있었는데, 이러한 두 경향은 “자기 부정적 국사관”과 “과대망상적 국사관”의 경향이라고 비판되기도 하였다.<sup>46</sup> 『청맥』은 창간호에서 일본으로부터 당한 역사적 수난과 수탈이라는 특집기사에 이어 4호에도 ‘한국인의 이상기질’을 특집기사로 기획하여 “불신, 사꾸라, 체증, 엽전의식, 심판받아야 할 불로사상, 공짜, 백만능, 노예근성 팔자소관” 등을 각각의 기사로 다루어 한국인 ‘기질’의 병리성을 다루었다.<sup>47</sup> 『청맥』에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경향이 모두 보이기는 하지

45 백낙청(1968), 「편집후기: 『창작과비평』 2년반, 『창비』 여름호, p. 369.

46 송건호(1965), 「한국민족주의의 역사적 배경, 『청맥』 12월호, pp. 59-75.

47 장병철(1964), 「특집 한국인의 이상기질, 장병철 잃어버린 상호연대의식, 불신: 우리는 이웃을 믿지 못하고 사는 버릇에 젖어있다.」, 『청맥』 12월호, pp. 80-131; 임인영(1964), 「근대화의 탈을 쓴 이중성격, 사꾸라: 우리사회에서는 사꾸라도 근대화하고 있어, 『청맥』 12월호;李啓謐(1964), 「퇴폐적 자기방어진술, 체증: 체증은 자기상실과 자기은폐하는 한국인의 고질, 『청맥』 12월호; 송동준(1964), 「못생긴 자화상에의 미학, 엽전의식: 엽전이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자학은, 『청맥』 12월호; 임송(1964), 「심판받아야 할 불로사상, 공짜: 공짜는 사회의 혼란에 정비례하는 아노미 현상, 『청맥』 12월호; 이덕희(1964), 「사대적 열등의식의 발로, 외래광: 국산품 사용을 수치로 생각하는, 『청맥』 12월호; 조덕송(1964), 「권력시대의 생활철학, 백만능: 백이란 권력의 분비물이며 어

만, 주로 전자의 역사서술 경향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후진성, 정체성 인식은 역사 서사에서 정체적 요소를 찾아 이것을 민족성/국민성으로 보아 개조하려는 경향, 또는 정체성을 낳기 이전의 고대문화를 민족 문화의 정수로 보려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sup>48</sup> 이러한 역사인식, 근대화를 위한 국민성/민족성의 개조라는 문제의식은 1950년대 『사상계』의 후진성 인식 및 그의 극복을 위한 그들의 인간개조운동과도 유사한 사유구조이며, 1920년대 안창호, 이광수 등의 민족개조론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였던 경향이었다.<sup>49</sup>

1960년대 후반 『창비』에는 한국사 특히 근대사를 이전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한국 역사 서술이 등장했다. 1967년부터 편집진에 의해서 편성된 이성무, 송찬식, 한영우, 정구복 등이 쓴 실학 고전 번역 연재물이 실리기 시작했는데, 이 잡지의 본격적인 첫 한국 역사관련 논설인 1968년 김영호의 「유길준의 개화사상」은 같은 해 여름호에 소개된 구나르 미르달(Karl Myrdal)의 저개발국이론의 관점을 수용한 역사관을 선보였다.

오늘날 우리가 독자적인 한국근대사 이론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전통사상을 검토하여 “전통 가운데서 참으로 실질적으로 유익한 부분을 취”(Myrdal)하여 계승·발전시키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었고 … 유길준은 한국초기근대화의 비전을 학적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려 이론화한 사람이었던 것<sup>50</sup>

---

진백성과는 거리가 먼 것], 『청맥』 12월호; 조동일(1964), 「골계에 찬 노예근성, 팔자소관: 팔자소관은 자신과 모험정신을 상실한 한국인의 콤플렉스」, 『청맥』 12월호.

48 『청맥』에 실린 후자의 예시로는 안계현(1964), 「단군조선시비론」, 『청맥』 11월호; 류홍렬(1964), 「문화상으로부터 한국의 자주성」, 『청맥』 11월호 등이 있다.

49 윤상현(2013), 「사상계의 근대 국민 주체 형성기획: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의 담론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11호.

50 김영호(1968), 「유길준의 개화사상」, 『창비』 여름호, p. 476.

김영호의 이 글은 한국사 서술에서 근대화에 “실질적으로 유익한 부분을 취”하여 발전시켜야 한다는 관점을 미르달을 인용하며 제기하고 있다. 또한 주제도 한국의 초기 근대화에 공헌했다고 평가하는 유길준의 경제사상에 관한 연구였다. 저개발국가의 근대화를 위해서 그들 자신에게 맞는 ‘가치전제’를 찾아야 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맞는 근대화이념이라고 하는 미르달의 『아시아의 드라마』의 관점을 기초로 한국근대사에 있었던 근대화이념을 모색하고자 했던 것이다.<sup>51</sup> 이러한 경향은 국수주의적인 고대 전통의 숭배 혹은 후진성·정체성을 넘어서서, 저개발국으로서 ‘근대화’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역사 서사를 새로이 ‘근대화’에 복무하도록 재구성하고자 하는 시대적 사유를 반영하고 있었다.<sup>52</sup>

1969년 백낙청의 「시민문학론」에서는 이상화된 ‘시민의식’을 한국사에 서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때 그 가능성들로 실학, 동학, 3·1운동 등 역사적 사건들의 가치평가가 이루어졌다. 「시민문학론」에서는 3·1운동을 일종의 부르주아혁명으로 보고자 하며, 프랑스혁명에 참가한 혁명적 세력처럼 시민으로 부르고자 하였고, 부르주아혁명에 참여하는 자를 시민으로, 그렇지 않은 자를 소시민으로 보고자 하였다.

우리의 과거에서 우리가 진정한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 (중략) 동학이 민중의 반봉건적 저항과 민족적 주체성의 주장을 보여준 역사적인 움직임이었지만 당시 한국 농민층의 봉매성에 근거한 많은 반시민적 요소들 때문에 당대의 가장 선진적인 지식인들의 노력과 일체가 된 진정한 시민의식을 이룰 수 없었다면, 기

51 미르달의 저개발국의 근대화에 관한 저서 『아시아의 드라마』를 소개한 글로는 임종철 (1968), pp. 297-299 참조.

52 물론 한국사학계에서는 이미 1960년대 초 4월 혁명과 식민사관 비판, 그리고 재일교포 한국사학자들과 이들을 통한 북한역사학의 소개 등을 통해 발전론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신주백(2014), 관점과 태도로서 ‘내재적 발전’의 형성과 1960년대 동북아시아의 지적 네트워크, 『한국사연구』 164호, p. 247.

미년의 3·1운동은 참다운 시민의식 형성에 필요한 제반 요소들—지식층의 근대적 의식과 민중의 저항정신과 새로운 국제정치적 요인으로서의 반식민지주의가 일단 한데 모이는 데 성공했던 민족사상 최초의 대사건이었다.<sup>53</sup>

1960년대 말 『창비』에서는 근대화, 시민사회의 건설이라는 과제를 수행할 주체를 과거의 역사에서 그 선례를 찾고자 하였으며, 동학이 당대 농민들의 반식민적 요소들 때문에 시민의식을 이루지 못한 반면, 3·1운동은 지식층의 의식과 민중의 저항이 함께한 사건으로 보았다. 여기서 시민적 성격이란 반봉건 투쟁, 근대화운동으로 수렴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3·1운동은 민족혁명이지 부르주아혁명으로 보긴 어려움이 있다. 부르주아가 주도하고 그들이 혁명을 통해 왕과 귀족이라는 1·2신분으로부터 권력을 찬탈하여 3신분이 드디어 1신분이 되는 공화국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혁명이었다기보다는, 3·1운동은 기본적으로 왕국을 찬탈한 일본민족으로부터 조선민족에게로 주권 권력을 되찾아오려는 혁명이었다는 의미에서 민족혁명이었고 이를 주도했던 세력도 조선부르주아였다기보다 종교적 지도자들, 정치사회적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소부르주아에 가까웠던 세력이었으며, 공화주의와 복벽주의가 뒤섞였던 민족혁명으로 보아야 역사적 사실을 보다 가까울 것이다. 다만 민족운동이었던 3·1운동을 시민의식의 발현이자 그 실패로 보는 관점과 반봉건·반외세의 과제를 근대‘화’의 과제로 본다는 점은, 여기서 시민이라는 주체가 곧 민족이라는 주체로 변화해서 호명될 가능성을 보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말 식민사관의 극복을 과제로 내걸었던 한국사학계에도 민족을 역사 서사의 주체로 하였으나 아직 ‘민중’은 생활사 서술의 대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 정도로 언급되는 단

53 백낙청(1969), pp. 480-485.

계였다.<sup>54</sup>

백낙청은 근대화를 이룬 서구의 에센스를 ‘시민의식’으로 보았으며, 이때 시민의식으로 실현하는 근대화는 문화적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산업화를 내포하는 것이기도 한 것으로 이렇게 경제적 근대화를 기준으로 역사적 사실들을 평가하는 관점은 4·19에 대한 평가에서도 드러난다.

4·19의 성공은 첫째 휴전선 이남에 국한되었으며 둘째 주로 도시에 한정되었고 셋째 우리의 가장 영향력 있는 맹방 미국의 호의적 반응에 힘입은 바 컸다는 의미에서 그 나름의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 제3공화국의 중요한 업적으로 내세워지는 경제성장과 건설조차도 실은 자유당정권의 무능과 무기력에 대한 4·19의 선고에서 그 적극적 측면의 시원을 찾을 수 있다.<sup>55</sup>

4·19의 원인에 대해서도 자유당의 부정선거나 부패보다는 제3공화국의 경제성장에 대비되는 (경제적) 무능과 무기력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미국도 맹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시민문학론』에서 서구적 근대화와 근대성의 가능태들로서 한국 역사의 주요 사건들과 계기들을 찾아 서술하는 본격적인 역사적 관점을 나타냈다.

1960년대 『창비』가 추구했던 방향이 문화적 근대화운동에 가까운 것이었다면, 1972년 유신체제 이후 『창비』에는 정치적 사회운동으로서 “유신체제 이전으로 복귀”를 의미하는 “민주회복운동”이 제창된다. 1970년대는 세계적으로도 후진국 내셔널리즘, 자원민족주의 등의 대두와 맞물리면서, 세계적 사조도 민족주의의 시대가 되었다.<sup>56</sup> 국제적·국내적 정치 환경의 변화

54 「중고등학교 국가교육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에서 민족주체성 중심으로 민중생활을 묘사할 것을 일종의 지침으로 작성되었다. 신주백(2014), p. 376.

55 백낙청(1969), p. 496.

56 “1969-1974년까지로서 한국경제의 일본경제건재로의 집중적인 예측 단계이다”, “마산

를 배경으로 1970년대에 『창비』의 역사관에는 대결적 양상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역사가 일종의 싸움인 이상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감정, 빛나게 싸워준 영웅적 형제에 대한 찬탄의 감정, 배반자에 대한 분노와 매도의 감정 등은 결코 청산될 수 없으며 청산되어서도 안 된다.<sup>57</sup>

적대세력이 내건 이념이나 주장 일체를 배격하거나 금기시함이 부득이 했던 이 싸움의 결과, 우리의 문학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 아니면 안될 것까지도 적에게 빼앗기거나 넘겨준 꼴 ... 대동단결이라는 미명 아래 친일세력을 포함한 수구적 불순세력이 민족주의란 기치 아래 모아들<sup>58</sup>

유신체제 이후 민주회복운동 과정 속에서 역사를 적과의 투쟁으로 보는 관점은, 전술되었던 내부의 사상적 일체화를 강조하는 경향과 더불어 대결적인 집단주의를 강화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고 하겠다.<sup>59</sup> 여기에는 1) 근대를 서구적 이상사회에서 반외세 반봉건의 이상주의적인 어떤 단계로 끊임없이 확대 설정하고, 2) 개인주의를 비판하면서 집단적 주체로서 민족을 호명하며 집단 내부의 사상적 통일을 강조하고, 3) 민족의 내적 발전을

에서는 수출자유지역내의 행정이 주로 관리청에 속해 있으므로 한국 중앙정부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일본영토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이창복(1974),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실태」, 『창비』 겨울호; 박현재(1973), 「자원문제의 경제사적 고찰」, 『창비』 겨울호; 정운형(1974), 「리스트의 국민주의에 대한 비판」, 『창비』 봄호; 백기범(1974), 「대난동 시대의 국제정치」, 『창비』 봄호.

57 백낙청(1973a), p. 441.

58 신경림(1973), 「문학과 민중: 현대한국문학에 나타난 민중의식」, 『창비』 봄호, p. 13.

59 『창비』의 적에 대한 적대적 인식과 관련하여, 이러한 경향이 1972년 이영희의 「베트남전쟁」연재로부터 시작되어 제1세계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확장되었다는 관점도 있다. 김민정(2011), 「1970년대 ‘문학 장’과 계간지의 부상: 『창작과비평』과 『문학과지성』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p. 105.

가로막는 적에 대한 적대적 인식, 그 투쟁을 일제식민지시기 반제국주의운동에서 연원시키는 특징을 보여 준다.

이전까지의 역사 서사 방식이 “낙후한 민족성/국민성—수난의 역사—낙후되도록 만들었던 요소의 개조 혹은 낙후되지 않은 전통적 요소의 선양이라는 두 개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창비』 이후에는 역사 속에서 시민의식의 가능태들을 찾기, 혹은 근대화의 가능성들을 찾기로 ‘서사’의 구도가 바뀌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근대화 가능태들과 가능성들을 찾기라는 관점은 근대화를 위한 민족성 개조가 아닌 문화 전체의 개조라는 관점으로부터 가능했으며, 역사학에서 내재적 발전론이라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서사’ 구도와 결합되었다고 하겠다. 역사학에서 정체성론 및 식민사학론의 극복-근대의 맹아와 발전가능성의 모색이라는 구도와 친연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 역사 서사는 사월혁명 이후 문화적으로 열렸던 민족주의 지식 공간에서 산업화시기에 근대화 지향을 통해 문화 전체를 개조하려 했던 과정에서 근대화의 가능태들 찾기라는 하나의 사유 틀을 갖고 있었다. 또한 1970년대 역사학에서 식민사관 극복이라는 맥락은 반일주의적 민족주의의 경향, 일본에 의한 수난의 역사라는 관점과 더욱 결합하는 형태를 취했다.

#### 4. 결을 대신하여

1960년대 『창비』는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대화=산업화, 통일이라는 지향을 보였다. 여기서 근대화는 한일협정에 대한 찬성에 가까운 현실주의적인 것으로서 청맥 편집진 및 역사학계의 반일주의적 근대화와 차이를 보였다. 『창비』 편집진의 ‘근대화’ 인식은 근대화를 산업화로 정의했던 것에서 나아가, 봉건성에 저항하고 자유와 사랑의 이상적 서구 문화의 에센스를 실현하는 것까지 확대되었다가 1970년대 다시 (신)제국주

의적 침략을 철폐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것이 되었다. 『창비』 편집진의 ‘근대화’에 대한 사유구조는 근대화를 끊임없이 보다 이상적인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대화’를 지속적으로 달성해야만 할 어떤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었다.

운동의 주체에 관해서 『창비』는 초기 지식인과 문인을 문화적 근대화의 주체로 상정했으나, 이후 봉건성과 투쟁하는 공동체로서 소수 선각적 지식인과 다수 민중의 결합을 주장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이전의 엘리트주의적 지식인-민중관으로부터 민중 연대의 민족관으로 변화해 갔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반개인주의적인 경향과 연합체 내부의 사상적 일체화를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역사 서사에서는, 저개발국이론의 소개와 맞물려 한국근대사에 있었던 근대화이념을 모색하고자 했던 경향이 등장하였고, 이전까지의 역사 서사 방식이 ‘낙후한 민족성/국민성—수난의 역사—낙후되도록 만들었던 요소의 개조 혹은 낙후되지 않은 전통적 요소의 선양’이라는 두 개의 구조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창비』 이후에는 역사 속에서 시민 의식의 가능태들을 찾기, 혹은 근대화의 가능성들을 찾는 ‘서사’의 구도로 바뀌었다. 이러한 역사 서사는 1960년대 후반 이전과는 다른 일정 정도의 산업화가 가시화되는 시점과도 관련된다.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는 당대 사회상이 반영된 새로운 자국(自國)에 대한 역사가관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이러한 인식이 역사학계에서 진행되는 식민사관 극복의 흐름과 연계되면서 내재적 발전론이라고 하는, 한국의 역사 속에서 서구적 근대성에 대응할 만한 유사한 현상들을 찾고자 했던 경향이 합류했다. 1960년대 『창비』 편집진들은 근대화를 우선하고 반일주의적인 요소가 약했던 반면, 식민주의의 극복을 문제의 시발점으로 했던 역사학계는 반일주의적 요소가 훨씬 강했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후반 산업화시기의 경제사회적 변화와 맞물린 사유구조가 있었고, 이러한 사고방식이 역사 서사로 드러났다. 1970년대 역사 서사에는 유신체제이전으로 돌아가고자 한 ‘민중회복운

동’ 과정에서 민족의 내적 발전을 막는 세력에 대한 적대적 대결관의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현대사에서 소위 ‘30년대생’이라 불리는 세대의 지식인들은 (통일 된) 식민지조선에서 성장해서 한국전쟁과 급작스런 분단을 겪고 4월 혁명 혹은 산업화의 장년기를 보낸, 4월 혁명 세대 혹은 1960년대의 세대이다. ‘근대화’와 ‘근대’를 달성해야 할 미래로서 상정하고 이러한 달성되어야 할 ‘근대’를 위해서 개인주의를 허무주의적이고 소극적인 것으로 비판하며 민족이라는 집합적 주체형성에 익숙하고 후진성 극복을 위한 통일을 당위적인 것으로 전제하며, 이러한 당대에 획득한 올바른 길과 진리를 반독재투쟁 과정의 대결적 사명의식으로 일제식민지의 독립투쟁으로부터 역사 서사를 통해 정당화를 강화한 사유구조를 구성해 내었다. 이러한 사유구조는 산업화시기의 강력한 민주화운동을 가능케 한 운동의 경향이 되었다. 한때 NICS로 불렸던 산업화를 이루었지만 일당독재나 장기집권을 벗어나지 못한 국가들과 달리 절차적 민주화/합법적 정권교체의 틀을 형성했다. 이러한 사유구조를 생산하고 더 나아가 그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사회적 무의식으로서 에피스테메를 전수하고 재생산한 지식인들의 사유구조이기도 하다.

1960년대라는 지성사적 기원을 공유하고 있는 역사학계의 내재적 발전론의 사유구조는 식민지 반제국주의운동으로부터 현재적 반제운동의 의의와 중요성을 끌어오는 것, 근대를 완결되지 않은 추구되어야 할 이상적인 어떤 것으로 끊임없이 상정하는 것, 적과 대결적 인식과 태도,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 경향들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분단의 해소와 민족통일이라고 하는 근대적 과제가 완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이상화하여 도달해야 할 당위적인 어떤 것으로 상정할수록, 냉정한 국제적 관계 속에서 정책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을 통한 외교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을 오히려 어렵게 하는 측면과 개인주의적이고 다변화된 사회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에게 거대담론에 대한 무

관심 혹은 심리적 저항감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다.<sup>60</sup>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근대를 이상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철학사의 흐름 속에 등장했던 ‘탈근대’의 문제의식과 방법론에 지나치게 편향적인 거부감을 갖게 함으로써, 탈근대 학술이 고민했던바 이성적 ‘근대성’에 대한 성찰이라는 핵심적 의제가 심도 있게 역사학의 학술의제로 심화되기 어렵게 하고 이론내적인 깊이로 심화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1960년대 『창비』에서 아직 한국사회에서 논의되기에는 이른 문제인 듯 사고되었던 문제들이 이제 논의되어야만 할 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어느 개인 개인보다 전체 사회 그 자체를 중시하는 동시에, 그 사회에 속해 있고 그 사회에 의해 규정되며 그 사회의 생활양식을 형성하는 데 일조하면서도 또 그들 자신은 제 나름으로 하나의 절대적 목적을 이루는 인간의 창조를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와 개인 중 그 어느 한 요소도 여기서는 우선권을 갖지 않는다. 사회가 단순히 개인 관계 탐구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만도 아니고 개인이 순전히 생활양식의 어떤 국면을 예시하는 수단으로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민주주의의 첫 중대목표를 깨닫는다. 만인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이 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리고 아무도 다른 어느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려 하지 말 것이다. … 인간을 규정하는 행위를 생산 또는 봉사라는 추상으로 정당화했는가 ‘중족의 영광’ 또는 ‘훌륭한 시민정신’의 추상적 명분을 내세웠는가 결과적으로 대동소이한 것이다.”<sup>61</sup> 한국 사회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라고 하는 오래된 철학적 난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난제에 직면하는 과정은 동원과 호명의 시대의 에피스테메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월혁명과 산업화를 거쳐 형성된 한국 지식인들의 역사 인식은, 1960

60 역사학계 후속세대의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연구가 있다. 최종석(2016), 「내재적 발전론 ‘이후’에 대한 몇 가지 고민」, 『역사와 현실』 100호.

61 레이몬드 윌리엄스(1966), p. 351.

년대 이래 근대화와 통일이 중요한 현실문제로 인식되며 대결적이고 방어적인 공동체주의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내적 통일을 지향하는 공동체주의적 역사 인식에는 근대화 및 산업화가 개개인 혹은 노동집단, 여성에게 억압적이고 폭력적이며 파괴적일 수 있다는 근대화와 공동체주의가 가진 그림자를 일면적으로 접근하는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는 평화로운 쌍생아가 아니었으며, 급속한 산업화에 역군으로 동원되었던 민족과 집단주의는 그것이 성공했을수록 그 내부 성원들의 개성과 독립성의 억압의 시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후기 산업사회를 지난 한국 사회에서 개인과 사회, 개인과 공동체 간의 문제는 여전히 문제적으로 남아 있다. 다시 이 사회에서 시민이 더불어 살아갈 공동체주의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억압의 시간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의 시대에 구성해 냈던 사유들을 분해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근대화론의 개발주의가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속에 인류의 생존을 위한 반성의 기로에 놓여 있다면, 그와 쌍생아였던 발전주의적 역사 서사도 냉전적이고 대결적인 역사관에서 벗어나 민족적 정체성은 인식하지만 보다 세계적 공존을 모색하는 경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것이 역사학이 도태되지 않고 향후의 인문학적 사유의 자생력을 되살리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자료

『사상계』

『세대』

『68문학』

『대학신문』

『독서신문』

『창작과비평』, 1966~1980.

『청맥』, 1964~1967.

백낙청(1978),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I』, 창작과비평.

Lawrence, D. H. (1929/1930/1936/1954), "Nottingham and the Mining Country," written 1929, the New Adelphim, June-August, 1930. Phoenix, 1936, *Selected Essays*, Penguin Books, 1954.

### 논저

강진호·이상갑·채호석 편(2003), 『증언으로서의 문학사』, 깊은샘.

김민환(2002), 『한국언론사』, 나남.

김보현(2006),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김현주(2014), 「1960년대 후반 문학 담론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근대화주의의 관계: 『창작과비평』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41집.

문학과비평연구회(2004), 『한국문학권력의 계보』,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백승욱(2022), 「촛불의 오해, 차도(借刀) 응징, 그리고 자유주의라는 질문: 20대 대선 평가」, 『황해문화』 통권 제115호.

신주백(2014a), 「관점과 태도로서 “내재적 발전”의 분화와 민족적 민족주의 역사학의 등장: 민중의 재인식과 분단의 발전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65.

신주백(2014b), 「관점과 태도로서 “내재적 발전”의 형성과 1960년대 동북아시아의 지적 네트워크」, 『한국사연구』 164호.

오창은(2016), 「결여의 증언, 보편을 향한 투쟁: 1960년대 비동맹 중립화 논의와 민족적 민주주의」, 『한국문학논총』 72집.

윤상현(2019), 「『사상계』의 시기적 변화와 ‘개인’ 개념의 양상」, 『인문논총』 49.

윤상현(2014), 「1960년대 사상계의 경제 담론과 주체 형성 기획」, 『동국사학』 57권.

윤상현(2013), 「『사상계』의 근대 국민 주체 형성기획: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11호.

이경란(2010), 「1950~70년대 역사학계와 역사연구의 사회담론화: 『사상계』와 『창작과비평』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25권.

하상일(2008), 『1960년대 현실주의 문학비평과 매체의 비평전략』, 소명출판.

Chang, Kyung-Sup (2019), *Developmental Liberalism in South Korea: Formation, Degeneration, and Transnationalization*, Palgrave Macmillan.

원고 접수일: 2023년 4월 11일, 심사완료일: 2023년 5월 6일, 게재 확정일: 2023년 5월 10일

## ABSTRACT

# Modernization Theory and Historical Narrative in 1960s-1970s South Korea

Yun, Sang Hyun\*

This article explores the attitude and episteme toward modernization and historical narrative in South Korean liberal and nationalistic intellectuals in the 1960s–1970s. ‘Theory of National Literature’ of *Ch’angjak kwa pip’yŏng* (“Creation and Criticism”) originated from the cultural modernization movement in the 1960s.

Their concept of ‘modernity’ was redefined from industrialization to an ideal society of freedom and love, and finally into anti-feudalism, anti-foreign forces and the completion of exposing comprador modernization. They had an aspect of constantly expanding into something futuristic that should be pursued in each period.

In the historical narrative, a tendency to seek the ideology of modernization appeared in Korea’s modern history in lin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theory of underdeveloped countries. After *Ch’angjak kwa pip’yŏng*, the structure of historical ‘narrative’ changed to find the possibility of modernization in history.

**Keywords** The Perception of History, Modernization, Communitarianism, Nationalism, Minjung

---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Kyungnam University